

# FOUR ELEPHANTS IN A P&G CAR

Ferdinando Frega - Nando the Scribe



# P&G 자동차 속 코끼리 네 마리

THE P&G SAGA · 04

---

gillettenarrative를 공개한 지 막 1년이 되었을 때였다.

전화가 울렸다.

번호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국가번호 +1. 미국. 고향의 누군가가 나에 대해 알고 싶어 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Frega 씨인가요?”

“네, 말씀하세요.”

“저는 Anna예요. Cincinnati의 P&G에서 전화드렸어요.”

“어디라고요?”

그리고 나는 대답한다: 저기요, 우리 아들이 먼저 결혼을 하고, 그 다음에 아이를 낳아야 해요. 그러면 그때 제 도매 고객에게 주문을 넣을게요. Pampers 여아용을 주문하고 싶어요 — 그래야 딸이 태어나는 게 확실해지니까요. 저는 회사에서 직접 사지 않아요 — 그럴 능력이 없거든요. 진열대를 놓을 선반 공간도 없고요.

그녀가 웃음을 터뜨린다. 나 같은 사람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게 느껴진다.

그러고는 재빨리 자신이 CEO의 비서라고 말한다. 잠시 통화할 시간이 있는지, 그리고 그를 어떻게 연결해 드리면 될지 묻는다.

그런데 그는 인도 사람이다. 인도 출신. 내 기억이 맞다면, 그는 세 개 언어를 한다.

“연결해 주세요. 뭘 원하는지 들어 봅시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Frega. J입니다. 잘 지내십니까?”

“잘 지냅니다, 회장님. 회장님은 어떠십니까?”

“잘 지냅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하십시오, 회장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런데 지금 저한테는 70달러밖에 없습니다. 대출이 필요하시면 — 그 금액 안에서 부탁드립니다.”

그가 미소 짓는다. 그리고 나를 안심시킨다.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적어도 지금은.

“들어 보세요, Frega. 당신은 1년도 더 전에 웹사이트를 만들었지요 — gillettenarrative — 거기서 서사 상품과 오디오와 예고편을 무료로 나눠 주고 있고요. 당신이 내게 바친 글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동료들 말로는 그걸 읽는 사람이 우리 세 명만이 아니라더군요. 꽤 많다고요.”

“이미 10억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 시작일 뿐이에요. 게다가 그러한 사이에 당신은 웹에서 우리 Gillette 검색어를 전부 차지해 버렸어요. 우리가 새 제품을 시장에 내놓고 싶으면, 당신 웹사이트 안에 배너를 좀 넣어 달라고 부탁해야 할 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Frega?”

“회장님. 가장 먼저 할 일은 — 농부들이 늘 말하던 대로 — 딸이 태어나게 하는 겁니다. 그래야 소비자가 늘어나는 게 보장되니까요. 이익도 늘고요. 배당도요.”

“나머지는 그다음에 보지요. 배너는 — 문제없습니다. 무료로 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머니에게서 돈을 받지 않습니다.”

“제 걱정은 마십시오. 저는 어머니 Gillette의 성품으로 삽니다. 그분은 절대 놓지 않으시죠.”

“생각해 봤는데요,” 회장이 말한다. “당신을 찾아가 볼까 합니다. 서명한 1달러 지폐도 가져가지요. 당신이 그토록 친절하게 온 세상에 알린 그것 말입니다. 그리고 당신 때문에 한 번도 맛본 적이 없이 그렇게나 먹고 싶어진 그 모르타델라 샌드위치도 먹고요.”

“그건 말고기입니다, 회장님. 회장님의 종교와 맞는다면 — 훌륭하지요. 아니라면 ‘nduja로 하겠습니다. 매운 칼라브리아 고추 페이스트입니다.”

“자. 그 비행기에 오르시기 전에 — 인도식 수수께끼를 하나 내 드리지요.”

“코끼리 네 마리를 한 도시에서 다른 도시로 옮겨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작은 차에 태워야 해요 — 돈을 아껴야 하니까 P&G 경차로요. 어디에 태우시겠습니까?”

“음. Frega. 앞좌석에 두 마리. 뒷좌석에 두 마리.”

“감사합니다, 회장님.  
그 비행기에 오르셔도 됩니다.”

“모시게 되어 기쁩습니다.”

*Ferdinando*